

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여성정책이슈나 다양한 여성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<KWDI Brief>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.
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20대 여성 2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생각

20대 여성 중 88.8%는 미투운동 지지, 56.3%는 탈코르셋운동 지지, 60.6%는 혜화시위 지지

작성 : 이동선 (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)

Summary

- 20대 여성 중 48.9%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인식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14.6%로 34.3%p의 격차를 보임. 또한 20대 여성들은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보였는데, 여성 중 88.8%가 미투운동을, 56.3%가 탈코르셋운동을, 60.6%가 혜화시위를 지지한다고 응답.
- 20대 남녀 모두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음. 여성 중 81.5%가 성차별 문제에 관심 있다고 응답하였고, 남성 역시 여성보다 약 10%p 낮지만 71.3%로 높은 수준임.
- 이렇게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, “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심각성”에서는 여성의 경우 79.3%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, 남성의 경우 42.6%에 그쳐 성별 격차가 약 37%p로 나타남.
- 이는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볼 수 있으나,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월등히 높아 성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.

시사점

- 이번 조사 대상인 20대 남녀는 “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한다”는 점에는 동의하고, 미투운동 등 사회적 성차별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.
- 특히 20대 여성은 2명 중 1명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인식하고, 미투운동 등 페미니즘 운동에 높은 지지를 보일 정도로 성평등 감수성이 높아진 상황임.
- 남녀 모두 성차별 문제를 공통의 관심사로 인식하고 있지만, 우리사회의 실질적 성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남녀 간 인식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고, 성차별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남녀 간 출산의지 차이는 약 35%p에 달함.
- 20대 여성과 남성에서 성차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,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인식, 여혐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격차를 확인함. 이는 우리사회의 실질적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변화 및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함은 물론, 이러한 노력은 남녀 간 성불평등 인식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함을 보여줌.

[조사개요]

모집단 : 전국 만 19세~29세 성인 남녀

표본크기 : 1,004(유효표본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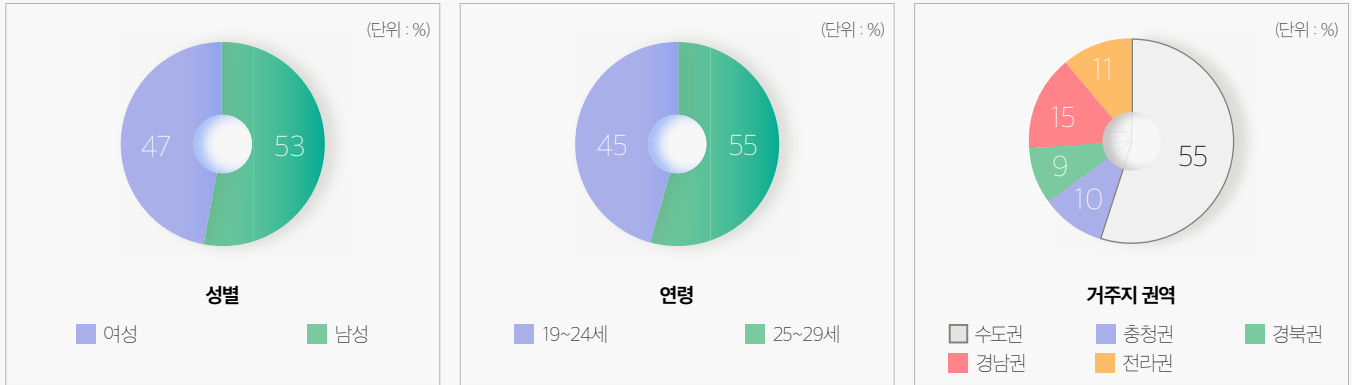
조사방법 : 무선 RDD(Random Digit Dialing), CATI(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) 시스템을 활용한 전화조사

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$\pm 3.1\%$ p

조사기간 : 2018. 7.5 - 7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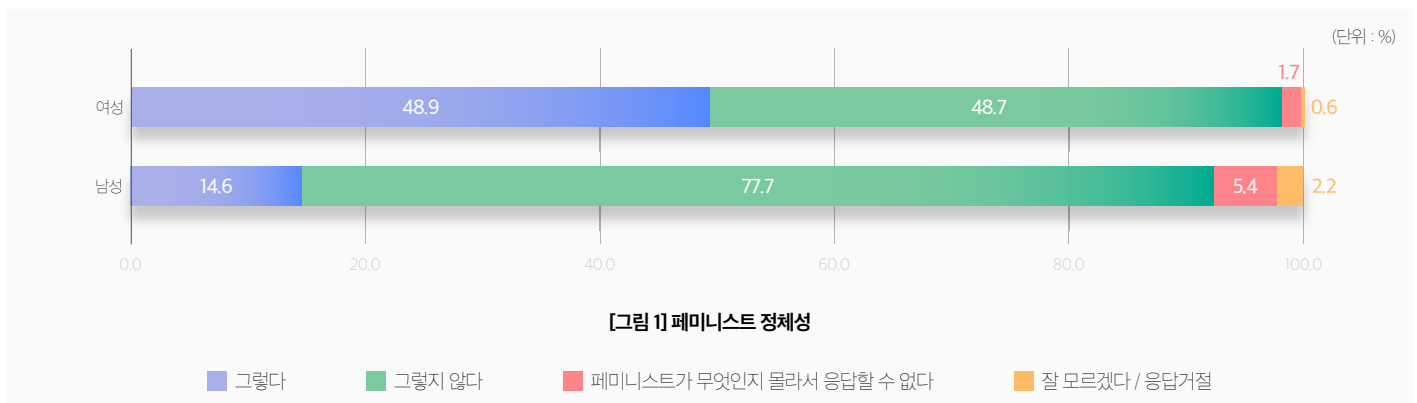
주) 1. 가중치를 적용한 사례수 및 %임

2. 수도권(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), 충청권(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), 경북권(대구, 경북), 경남권(부산, 울산, 경남), 전라권(광주, 전북, 전남, 제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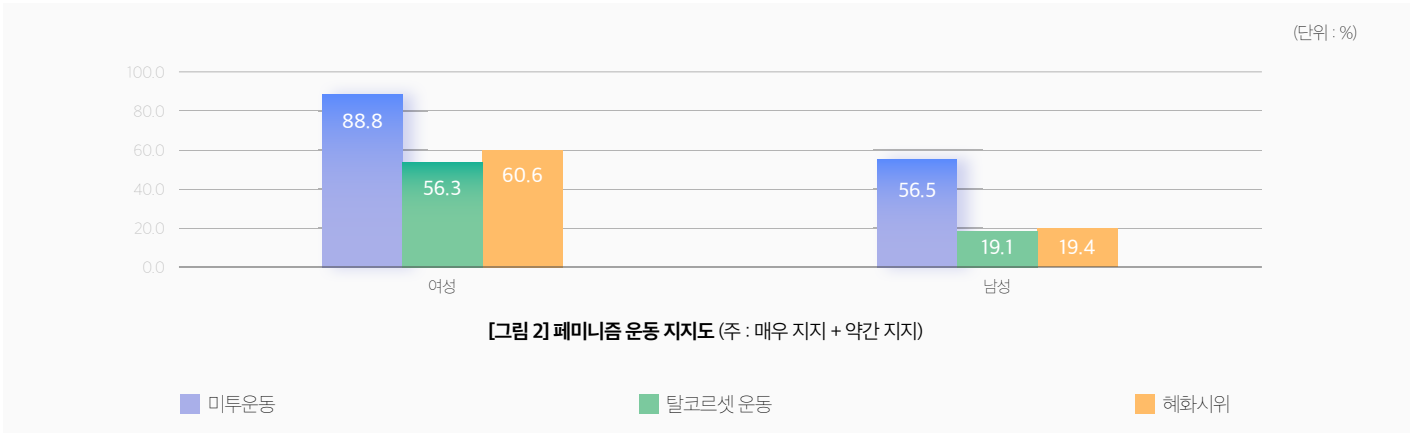
1. 20대 여성,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대중화

- ‘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가’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**여성 중 48.9%**(매우 그렇다 16.8% + 약간 그렇다 32.1%), **남성 중 14.6%**(매우 그렇다 1.7% + 약간 그렇다 12.9%)로 나타남[그림 1]. 이는 20대 여성 2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**20대 여성에게 페미니스트 정체성은 대중화되었음을 시사함.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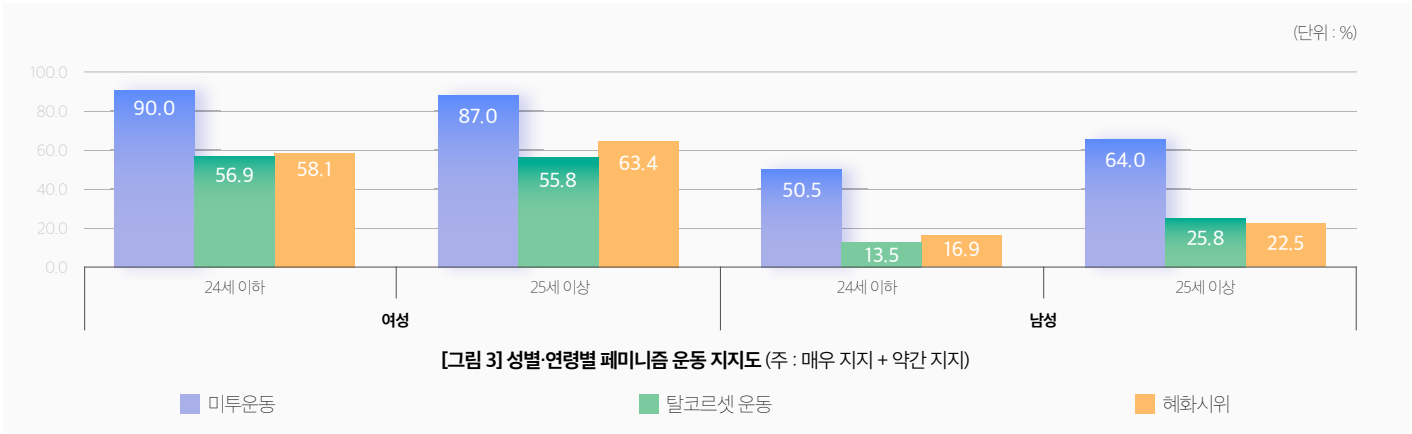
- **최근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도를 보임.** 미투운동, 탈코르셋운동, 해화시위에 대한 지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, **여성은 모든 운동에 대해 높은 지지율**을 보였으나, 남성의 경우 **미투운동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지도는 낮았음**[그림 2].

- 여성 중 88.8% 미투운동 지지, 56.3% 탈코르셋운동 지지, 60.6% 해화시위 지지
- 남성 중 56.5% 미투운동 지지, 19.1% 탈코르셋운동 지지, 19.5% 해화시위 지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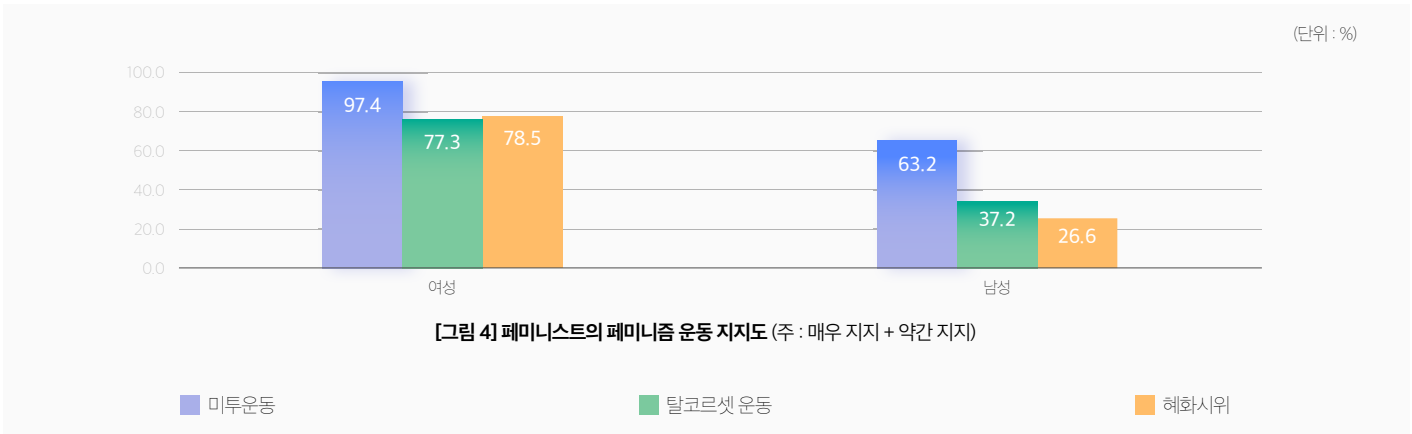
○ 페미니즘 운동 지지도를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, 여성의 경우 24세 이하와 25세 이상에서 지지도 변화가 크지 않으나, **남성은 24세 이하보다 25세 이상에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**[그림 3].

- 여성은 미투운동, 탈코르셋운동, 혜화시위에 대한 지지도가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, 남성은 상대적으로 미투운동, 탈코르셋운동, 혜화시위 모두 24세 이하보다 25세 이상에서 지지하는 정도가 각 13.5%p, 12.3%p, 5.6%p 높게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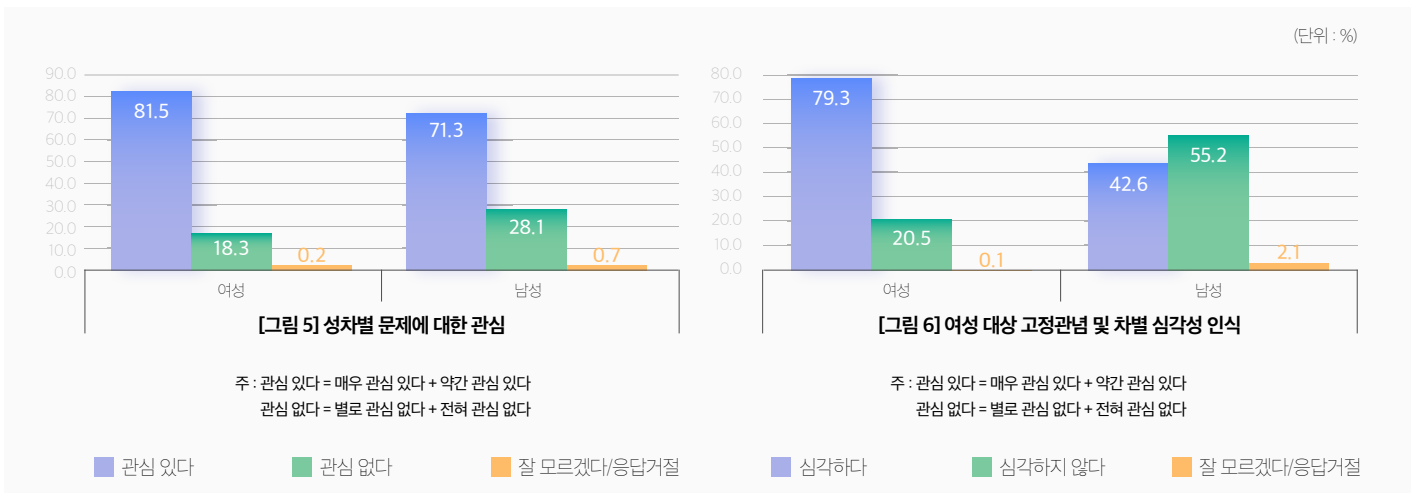
○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인식하는 응답자 중 여성은 모든 운동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고, 남성은 미투운동에 대해서만 과반 이상의 지지를 표시함[그림 4].

- 페미니스트 여성 중 97.4% 미투운동, 77.3% 탈코르셋운동, 78.5% 혜화시위 지지
- 페미니스트 남성 중 63.2% 미투운동, 37.2% 탈코르셋운동, 37.2% 혜화시위 지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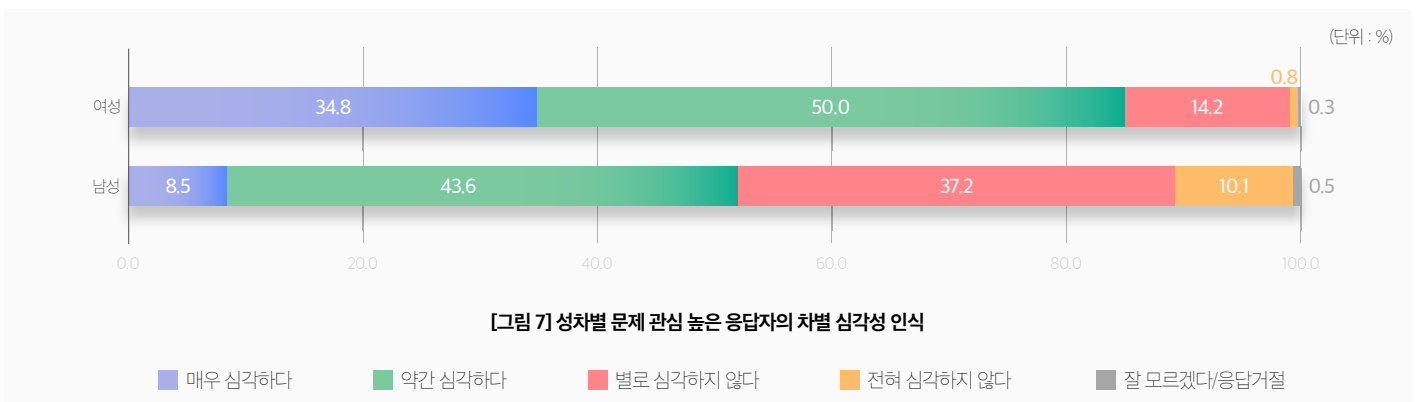


2.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는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의 공통 관심사였지만,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심각성에서는 남녀 간에 37%p의 격차를 보임.

-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는 20대 남녀 모두 공통의 관심사임. 여성 중 81.5%가 성차별 문제에 관심 있다고 응답하였고, 남성은 여성보다 10%p 낮지만 71.3%로 역시 높은 수준을 보임[그림 5].
-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에 상당한 격차가 나타남. “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심각성”을 묻는 질문에 여성은 79.3%가 심각하다 응답하였지만, 남성은 42.6%에 그쳐 성별 격차가 약 37%p에 달함[그림 6].



-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,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심각성을 분석한 결과, **여성 중 84.8%**(매우 심각 34.8% + 약간 심각 50.0%), **남성 중 52.1%**(매우 심각 8.5% + 약간 심각 43.6%)가 심각하다고 인식한다고 인식하여,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. 성차별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해도, 우리사회의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여성과 남성 간 격차는 여전함[그림 7]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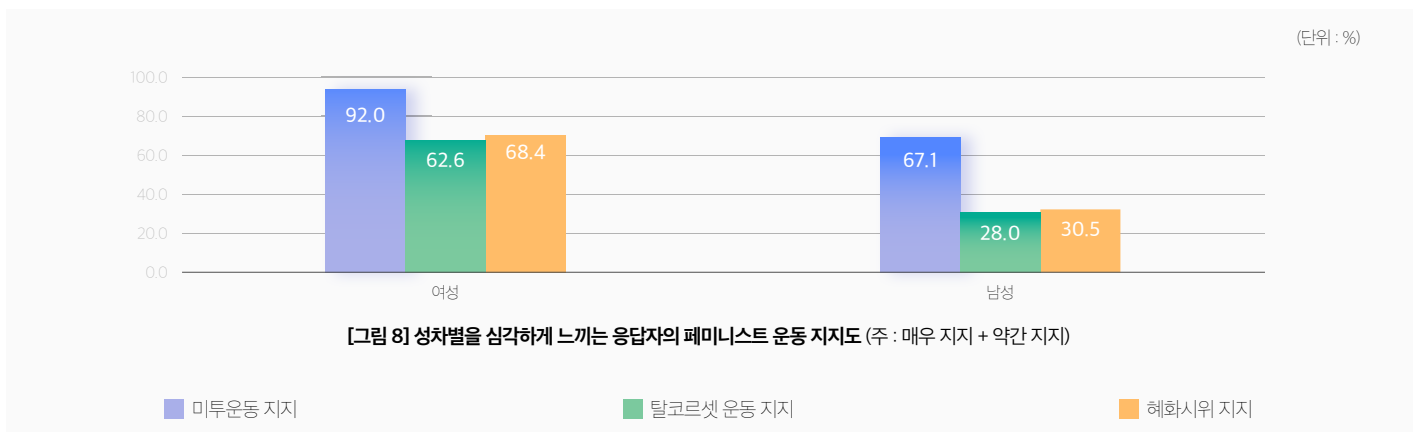


- 성차별 이슈는 20대 여성과 남성 10명 중 8명 정도가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성별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관심사였지만, 일상생활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심각성에 있어 성별 간 인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, **여성의 감수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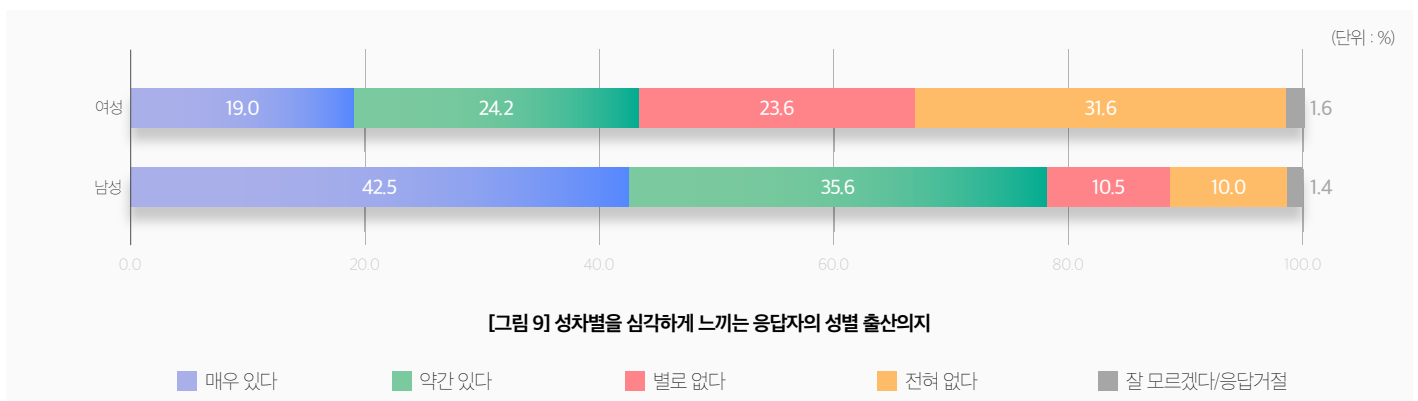
3.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지지도는 높고, 출산의지는 낮았으며, 여성혐오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

○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중 **여성은 모든 운동에 대해 높은 지지도**를 보인 반면, **남성은 미투운동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였고 탈코르셋 운동과 해화시위에 대한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**[그림 8].

- 여성은 미투운동 지지 92.0%, 탈코르셋운동 지지 62.6%, 해화시위 지지 68.4%
- 남성은 미투운동 지지 67.1%, 탈코르셋운동 지지 28.0%, 해화시위 지지 30.5%



○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더라도 남성은 출산의지가 높은 반면, 여성은 출산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았음.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중 여성은 43.2%(매우 있음 19.0% + 약간 있음 24.2%)만 출산의지가 있다고 답한 데 반해, 남성은 78.1%(매우 있음 42.5% + 약간 있음 35.6%)로 **성별 간 약 35%p의 격차**를 보임[그림 9].



○ 전체 응답자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간 여성혐오 인식도를 비교한 결과, **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약 80%, 남성은 약 43%가 우리사회 여성혐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**[그림 10].

- 여성혐오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 전체 응답자 중 70.4%(매우 심각 30.8% + 약간 심각 39.6%)이었고, 여성 대상 고정관념 및 성차별을 심각하게 인지하는 여성의 경우, 여성혐오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이 77.7%에 달함(매우 심각 42.0% + 약간 심각 35.6%)
- 여성혐오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남성 전체 응답자 중 27.9%(매우 심각 4.3% + 약간 심각 23.6%)이었으나,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남성의 경우, 여성혐오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비율이 42.9%(매우 심각 9.3% + 약간 심각 33.6%)로 약 5명 중 2명에 해당함
- 20대 여성과 남성의 여성혐오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이 월등히 높았지만,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성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남녀 응답자의 경우,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사회의 여성혐오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음.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개입은 우리사회의 성차별, 성별 고정관념 개선과 연계되어야 함을 시사함.

